

BIOGRAPHY

# Michael Sanderling

수석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

2018/19 시즌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이한 미하엘 잔데를링은 베토벤 교향곡 2번과 파질 세이 교향곡 4번의 세계 초연 무대를 지휘하며 시즌의 개막을 열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룩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토론토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를 비롯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방송 교향악단인 쾰른 방송교향악단,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여러 악단을 객원 지휘하며 악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케스트라에 데뷔했고, 가까운 미래에 베를린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는 아시아, 남미, 미국,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전세계를 정기적으로 투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녹음작업을 끝마친 베토벤 교향곡 전곡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음반이 소니 클래식 레이블로 발매를 앞두고 있다. 또한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어셔가의 몰락>과 쾰른 오페라극장에서 프로코피예프의 오페라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이며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Marken fotografie